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

협회 《하느님은 아버지 아버지의 집》

- 아버지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 -

승인 : 베드로 마니시우스 반 리에르테
바티칸시 부장관
로마, 1989년 5월 13일

소 개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전세계에서 점점 더 자주 들리는 외침이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으로 얼마 전에 교
회에 의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을 발표할
의무를 느낀다.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한 여자인 에우제니아 엘리사벳
라바시오 <Eugènie-Elisabeth Ravasio> 를 통하여, 세상
에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메시지이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사람들을 도와 우리 각자에 대한 우
리 아버지의 깊은 애정을 이해하게 하리라고 확신하며, 가장
넓게 가장 깊이 퍼지기를 바란다.

협회 《하느님은 아버지 아버지의 집》

사서함 135 67100 라킬라 이탈리아

카푸친회의

안드레아 다스까니오 신부.

출판일 1998년 5월 30일

* * *

까이요 <Caillot> 주교님의 증언

에우제니아 엘리사벳 타바시오 원장에 관하여
행해진 교회 법전에 합치하는 조사 중에 작성된
보고서에 뒤이어 행하여진

그르노블 <Grenoble>의 주교

- 까이요 주교님의 증언 -

그르노블의 주교로서 에우제니아 원장의 일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뒤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이제 주교로서의 내 증언을 교회에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1. 첫번째 확실성이 조사에서 아주 명백하게 밝혀진다. 그것은 에우제니아 원장의 견실한 덕행들에 대한 확실성이다.

그의 수도생활 시초에서부터 수녀는 그의 경건심과 순종과 겸손으로 장상들의 주의를 끌었다.

장상들은 수녀의 수련기 동안에 일어난 사실들의 이상한 특성으로 인하여 난처해져서 그를 수녀원에 그대로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었다. 그러나 수녀의 모범적인 생활을 보고는 장상들이 망설이고 그들의 계획을 포기해야 하였다.

조사를 하는 동안 줄곧 에우제니아 수녀는 큰 참을성과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서 -불평 없이 모든 진찰을 받았고- 신학과 의학위원회의 흔히는 길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답변하였으며 반대와 시련들을 받아들였다.

모든 조사위원이 특히 그의 순박함을 칭찬하였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녀가 덕행을 영웅적으로 닦을 수 있다는 것을 신학자들의 증언으로 알아낼 수 있었다. 특히 1934년 6월 오귀스뜨 발랑생 <Auguste Valencin> 신부의 조사 때에 보여준 순종과 1934년 12월 20일의 그 고통스러웠던 날에 보여준 겸손이 그러하였다.

수녀가 총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나는 그가 자기 지위에 딸린 책임에 영혼들과 그의 회와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매우 전념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책임에 대하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그에게는 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수녀가 사는 것을 자세히 지켜보는 사람들은 나 자신이 그런 것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보여준 그의 정신력에 놀란다.

내게 감명을 주는 것은 덕행들뿐 아니라, 별로 배운 것이 없는 한 수녀가 그의 수녀회의 가장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는데, 그 원장이 권위를 행사하는 데에서 보여준 자질들이다! 거기에는 벌써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있고, 이 관점에서 내 총대리 게리 <Guerry> 주교가 -선거일에- 행한 조사는 매우 암시적이다. 장상들과 여러 대표단의 단장을 포함한 참사원 모두의 대답은 그의 판단력과 균형과 기력과 끈기함의 장점들 때문에 그의 젊은 나이와 그의 임명을 당연히 몰리치게 되어 있는 교회 법전상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에우제니아 원장을 총장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실은 선거인들이 선택하는 원장에게 걸었던 기대를 초월하는 것 같다.

내가 에우제니아 원장에게서 가장 눈여겨본 것은 우선 그의 밝고 발랄하고 예민한 지력이다. 그가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다는 말을 내가 했는데, 하긴 그것은 수녀 자신에게는 달려 있지 않은 외부적인 이유로 그렇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가 병을 오래 앓아서 그는 매우 어렸을 때부터 집안 살림의 걱정을 떠맡아야 하였고, 수업에 매우 자주 결석할 수밖에

에 없었다. 그런 다음 수녀원에 들어올때까지는 직조공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생애의 어려운 여러 해가 뒤따랐다. 그 결과 골짓기와 철자법에서 물론 느껴지는 이 최초의 결합에도 불구하고 에우제니아 원장은 그의 공동체에 많은 강의를 하였다. 특히 그의 수녀회에 보내는 회장을 자신이 작성하였고, 사도들의 모후의 수녀들에게 맡겨진 구호기관들을 위하여 시당국이나 이사회와 체결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그는 긴 지침서를 짓기도 하였다.

에우제니아 원장은 어떠한 상황이나 양심의 문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본다. 그의 지도는 분명하고 정확하며 특히 실용적이다. 그는 그의 1,400명이나 되는 수녀들 하나하나의 적성과 덕행을 알고, 그래서 여러 부서에 임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격있는 수녀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는 그의 수녀회의 필요와 재원, 그리고 각수녀원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고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의 모든 수녀원을 순시한다.

나는 또 그의 선견지명도 특기하고자 한다. 그는 미래에 각구호기관이나 학교에 살아가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면장 가진 수녀들이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끝으로 내 생각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 특히 흥미 있는 일인 것 같다. 즉 에우제니아 원장은 결단력과 현실 감각과 실행력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6년 동안 그는 예순 일곱 개의 본원을 세웠고, 수녀회에 많은 개선을 가져올 줄을 알았다.

내가 그의 지능과 판단과 의지의 장점들과 그의 타고난 통치의 재능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들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때 고려해야 하였지만 만족할만한 설명은 줄 수가 없었던 그 모든 감정을 결정적으로 배제하는 것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가정들이란 환각(幻覺), 착각, 영매(靈媒)의 신통력, 히스테리, 정신착란 따위의 가정이다.

원장의 생애는 그의 정신적인 균형과 전반적인 균형의 끊임없는 증명이며, 이 균형이 관찰할 줄 아는 눈에는 그의 개성의 지배적인 평가인 것같이 보이기까지 한다. 조사위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매우 감수성이 강한 성질을 가진 사람, 모든 영향과 압시를 받아들이는 참다운 다면체의 거울과 같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하게 한 피암시성과 조종하기 쉬움이라는 다른 가정들도 나날의 사실로 반박되었다. 비록 민감한 성질과 다감한 기질을 타고났지만 에우제니아 원장은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인간적인 고려로 영향을 받기는커녕 그의 계획과 활동과 실행들을 표시할 줄을 알고, 그의 개인적인 영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정하게 할 줄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어떤 사실 하나만이 모든 평가보다도 그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총장으로 선출된 다음날 총장은 원장들을 선출해야 하였다. 그런데 방금 그에게 표를 던져준 원장들중의 한 사람을 서슴지 않고 갈았다. 그 지방 수녀원장은 예집트에 도착하면서 항공편으로 보낸 그의 경질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사명의 목적에 대하여

에우제니아 원장에게 맡겨졌다는 사명의 목적은 명확하고, 교리적인 관점에서 정당하고 타당한 것같이 생각된다.

명확한 목적은 이런 것이다. 즉 하느님 아버지를 알리고 공경하는 것인데, 특히 교회에 청하여 특별한 축일을 하나 제정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조사는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한 전례적인 축일은 가톨릭 기도의 전통적인 움직임에 합치하는 모든 가톨릭적 예배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의 기도는 미사의 기도문들과 미사 성제 중에 아버지께 드리는 전례적인 봉헌이 증명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거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특별한 축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로서 공경을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께서는 그분들의 사명과 외적인 표현에서 공경을 받으시는데,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위격에 그리스도인들의 주의를 끌 특유의 축일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많은 신자들에게 꽤 광범하게 행하여진 조사가 사회의 여러 계층과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에게서까지도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이 사실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전례적인 축일이 없다는 이 사실에 돌려야 할 것인가? 조사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버지를 무서운 심판자로 보기 때문에 그분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기까지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호소하는 편을 택하고, 또 아버지의 분노에 대하여 그들을 보호해 주십사고 예수님께 얼마나 청하는가!

그러므로 특별한 축일은 그 첫째 결과로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심에 질서를 바로잡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모든 것은..." 하는 하느님이신 구세주의 지시로 도로 데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라는 구세주의 지시로 도로 데려갈 것이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전례적인 축일은 또한 사도 성 야고보가 "그분에게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빛의 아버지..." 라고 부른 그분께로 눈을 드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그 축일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인자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고, 3위에 공통적인 천주성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의 한없는 보물을 세상에 베푸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아버지를 특별히 공경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같이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

내신 것이 아버지가 아니신가? 그러면 아들과 성령의 외부적으로 나타내심 때문에 그분들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없이 옳은 일이니, 미사의 감사송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데 대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특유의 축일의 독특한 목적은 따라서 분명히 나타난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찬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지가 말하는 것과 같이 구속을 생각해내신 분으로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이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 모여 그 아들을 요약하고 아들 안에서 자녀가 되게 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비종교화주의와 무신론과 현대 철학자들의 주장으로 인하여 옳은 길에서 벗어난 세상이 하느님을, 참 하느님을 알지 못하게 된 이 시점에서 이 축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아버지를, 자비와 인자의 아버지를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겠는가?

그 축일은 예수께서 예고하신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흠송하는 사람들의 수효를 불어나게 하는 데 이바지하지 않겠는가? 많은 인명을 빼앗는 전쟁들로 분열된 세상이 민족들 사이의 접근을 위하여 견실한 단결의 원칙을 찾을 필요를 느낄 때에 이 축일은 그들 모두가 하늘에 같은 아버지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또 같은 사랑의 성령과 일치하여 당신 신비체의 지체들로서 그분께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줌으로써 커다란 빛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전쟁의 시련으로 기진맥진하거나 지친 수많은 영혼이 깊은 내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갈망할 수도 있을 시점에서 이 축일은 은밀한 곳에 계시는 아버지를 흠송하고, 그들 안에 계신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신

아버지께 자녀답고 너그러운 봉헌으로 자기들을 바치기 위하여 "안으로" 그들을 부를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축일은 신뢰와 하느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믿음의 정신으로 아버지를 향한 영적인 어린이다운과 자녀다운 생활 둘째로 영혼들을 논리적으로 끌어가는 훌륭한 움직임이 보존하지 않겠는가?

다른 점에서, 특별한 축일이라는 이 문제와는 관계없이, 또 이점에 대한 교회의 결정이 어떠한간에 제기되는 교리의 문제가 있다. 훌륭한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기록하신 삼위일체와의 영혼의 관계에 대한 교리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 교리는 성 요한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는 생활에 대해서와 그리스도의 성심의 긴밀한 그분과의 공통적인 마음가짐으로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고, 특히 그분의 아버지께 대한 아들로써의 사랑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빛의 근원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신학적인 문제는 어떠한간에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실이다. 신학을 모르는 가련한 여자가 교리를 풍부하게 내포할 수도 있을 하느님의 통지들을 받았다고 언명한다는 사실이다.

환영 보는 사람의 상상력에 의한 구성들은 빈약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반대로 예우제니아 원장이 아버지께서 위임하셨다고 말하는 메시지는 생산력이 많고, -아울러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잘 조화되게 섞여 있다. 한편으로는 이 메시지가 그것을 수상쩍다고 비난하게 할 수 있을 새로운 면이 없는 교회 안에 전통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아버지께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한 것이고, 모든 것이 복음서 안에 있다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아는 데 대한 이 큰 진리는 다시 생각하고 깊이 파고 들고 생활하기를 요구한다고 메

시지는 언명한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러한 성질의 교리를 발견할 능력이 없는 도구의 약함과 수녀가 가져오는 메시지의 심오함 사이에 있는 불균형은 더 높고 초자연적이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다른 원인이 이 메시지를 그에게 맡기는 데 개입하였다고 어렵듯이 예감하게 하지 않는가?

그는 신학자인 조사위원들이 그 독창성과 풍요로움을 단계적으로나 겨우 희미하게 본 어떤 생각을 수녀가 발견한 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르겠다.

다른 사실 한 가지도 역시 매우 암시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예우제니아 수녀가 아버지의 발현을 보았다고 알렸을 때 신학자인 조사위원들은 아버지의 발현은 그 자체로서 불가능하다고, 그뿐 아니라 역사상 그런 발현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에게 응수하였다. - 이 반박에 수녀는 저항하며 이렇게만 언명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보는 것을 묘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들인 신학자들에게 찾으라고 부탁하십니다." 수녀는 그의 설명을 결코 바꾸지 않고, 그의 확언을 여러 달 동안 그대로 계속하였다. 그런데 1934년 1월에야 비로소 신학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품던 의의에 대한 해답을 성 토마스 자신의 글에서 발견하였다.

발현과 사명 사이의 구별에 대한 위대한 박사의 해답은 명쾌한 것이었다. 그 해답은 조사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던 장애물을 치웠다. 유식한 신학자들에 대항하는 보잘것 없는 무식장이 여자의 말이 옳았던 것이다. 여기서도 수녀의 빛과 지혜와 꾸준함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거짓 환영 보는 사람은 신학자들의 설명에 적응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그런데 수녀는 깨끗하게 버티었다. 이런 것들이 수녀의 증언이 내게는 신용을 가지고 뒷받침 할만한 가치가 있

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이유들이다.

어떻든 주목할 만한 것으로 내게 생각되는 것은 경탄할 만한 것에 대하여 취하고 보여준 조심성 있는 그 태도이다. 거짓 신비가들은 그들의 계획으로 옮겨오게 하거나 이상한 일들 밖에는 보지 못하기까지 하는데, 수녀의 경우에는 이상한 일들은 증거나 방법으로서 제 2선으로 물려보내진다. 흥분이 없고, 가치의 균형이 있어 그것이 좋은 인상을 만들어낸다.

신학자들의 조사에 대하여는 별로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알베르 <Albert> 신부와 오귀스트 발랑썬 <Auguste Valencin> 신부는 그들의 철학적 및 신학적 권위와 영성 생활에 대한 그들의 지식으로도 존경받는 분들이다. 그들은 다른 기회에 벌써 이번에 그들의 조사에 맡겨진 사실들과 같은 종류의 사실들에 대하여 개입해야 하였다.

나는 그들이 그 일을 매우 신중하게 하였다는 것을 안다. 이 이유로 인하여 내가 선택하도록 지목되었던 것이다.

나는 헌신적이고 참으로 양심적인 협력에 대하여 그들에게 감사한다. 수녀에게 유리하고 사실 전체의 초자연적인 해석에 유리한 그들의 증언은 그들이 오랫동안 처음에는 적의를 품고 회의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주저하였던 그만큼 더 가치가 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이의를 제기하고 수녀에게 어려운 시련을 겪게 하고 나서 차차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

결 론

내 영혼과 양심으로 교회에 대하여 내가 지고 있는 책임에 대한 매우 날카로운 감정을 가지고 나는 다음과 같이 언

명한다.

내게는 초자연적이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개입 만이 이 사실들 전체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서 빼낸 이 본질적인 사실이 내게는 고귀함과 고상함과 초자연적인 풍요로움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나택난다.

보잘것 없는 한 수녀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과 같은, 그리고 교회가 그 전례에 정해 놓은 것과 같은 아버지께 대한 참된 예배로 영혼들을 다시 불렀다. 거기에는 혼란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매우 순수하고 확실한 교리에 합치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메시지에 곁들여진 놀랄 만한 사실들을 이 중심적인 사건과 분리한다 하더라도 이 중심적인 사건은 그 가치를 전부 그대로 보존할 것이다. 특별한 축일에 관한 생각이 수녀의 개별적인 사실과는 별개로, 그리고 교리적인 이유로 채택될 수 있는지는 교회가 말할 것이다.

나는 수녀의 사명의 진정성에 대한 훌륭한 증거는 수녀가 환기하려고 왔다고 하는 아름다운 교리를 그의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녀가 그의 일을 계속하도록 놔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10년 동안 탐구하고 곰곰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서 당신 사랑을 이토록 감동시키며 나택내시는 장소로 내 교구를 택해 주신 데 대하여 아버지를 찬미한다.

메시지가 전달된 시기에
그르노블의 주교

- 우리 아버지의 메시지 -

우리 아버지의 메시지의 첫째 공책

1932년 7월 1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축일

마침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약속으로 영원히 축복받은 날이 되었다.

오늘로 오랜 준비의 나날이 끝나고, 나는 내 아버지와 모든 사람의 아버지께서 오시는 데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낀다.

몇분 동안 기도를 드린 다음 전혀 영적인 기쁨을 느낀다! 나는 아버지를 뵈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자하는 갈망에 사로잡힌다.

사랑으로 완전히 불타는 내 마음은 어떻게나 큰 신뢰를 가지고 열리는지 나는 지금까지 아무에게 대해서도 그토록 신뢰를 가진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내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나는 열광적인 환희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드디어 노래들이 돌백오기 시작했다.

천사들이 와서 그 기쁜 도착을 내게 알린다! 천사들의 찬송가가 어떻게나 아름다운지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쓰겠다는 마음을 먹은 지경이었다.

그 즐거운 가락이 잠시 그치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더불어 선택된 사람들과 케루빔과 세라핌 대천사들의 수행원이 나타났다.

나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내 허무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가 마니피캣 (성모 찬가)을 외었다.

그런 다음 즉시 아버지께서는 당신과 같이 앉아서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쓰라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를 모시고 왔던 조신(朝臣)들은 사라졌고, 아버지 혼자만이 나와 함께 남아 계셨는데, 앉으시기 전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네게 말했고, 이제 다시 말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한번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이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들과 내가 같은 모습,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하고 그들 가운데 온 것이다.

자, 보아라. 나는 보통 사람의 태도를 취하려고 내 왕관과 내 모든 영광을 내려놓는다!

당신의 왕관과 당신의 영광을 당신 발 앞에 내려놓으셔서 보통 사람의 태도를 취하신 다음, 아버지께서는 지구를 당신 가슴 앞에 왼손으로 받쳐 드셨다. 그러신 다음 내 곁에 앉으셨다. 나는 아버지께서 오신 것과 아버지께서 취하신 태도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몇 마디 밖에 말할 수가 없다!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해시키신 것을 표현하기 위한 말을 발견하지 못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이 집과 온 세계에 평화와 구원이 있기를. 내 능력과 내 사랑과 내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인류 전체가 구원을 향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찾는 그들의 아버지께로 오게 되기를 바란다!

내 대리자 비오 11세는 구원과 강복의 날들이 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오는 그들의 아버지께 대한 자녀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킬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내 일을 시작하기 위해 내가 이 날을 택한 것은 오늘이 내 아들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축일이기 때문이다. 내 일이 온 인류에 훌륭한 결과를 가져다 주게 하기 위해 내가 시작하려 온 일을 그 피로 반죽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온 참 목적은 이런 것이다

- 1° 내가 온 것은 내 인간들이 내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나친 공포를 없애고, 내 자녀들에게, 즉 현재와 미래의 온 인류에 알려지고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이 내 기쁨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 2° 나는 사람들과 민족들에 바람을 가져다주려고 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벌써 오백년부터 바람을 잃었느냐! 이 바람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에 힘쓰면서 평화와 안전 속에서 살게 할 것이다.
- 3°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리기 위해서 왔다. 사람들의 신뢰와 오직 하나만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아버지인 내게 대한 그들의 사랑이 동시에 커지게 하려고 왔다. 그 관심사란 모든 사람을 보살피고 그들을 자녀로 사랑하려는 관심사이다.

화가는 그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는 데에 커다란 기쁨을

맛본다. 이와 같이 나도 내 창조의 걸작인 사람들 가운데 오는 것을 좋아하고 내 기쁨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나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과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큰 행복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그가 할 수 있는대로 일찍 알기를 바란다.

나는 영원한 분이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나는 벌써 내 모습을 닮은 존재들을 창조하기 위해 내 전능을 쓰기로 결심했었다. 그러나 그전에 그 인간들이 그들의 생활수단을 찾아낼 수 있도록 물질적인 창조가 필요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가 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던 것을 세상에 가득 채웠다. 공기와 해와 비, 그리고 그들의 생명에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던 많은 다른 것들이었다.

마침내 사람이 창조되었다! 나는 내 작품을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러나 그 때에는 내 무한한 인자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위해 나는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택해 그들에게 내 소원과 내 슬픔과 내 기쁨을 알려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했다. 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인자는 나를 더 재촉해서 내 생각을 올바른 영혼들에게 알려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내 명령을 전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엄격을 사용해야 했는데, 그것은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나무라기 위해서였다. -벌하는 것은 해롭기만 했을 터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악습을 버리게 하고 그들이 배은망덕으로 잊어버렸던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의 창조주인 분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중에 악이 너무도 사람들의 마음을 잠기게 해서 나는 할 수 없이 세상에 불행들을 보내서 사람이 고통과 재

산의 파괴 또는 목숨을 잃는 것까지로도 정확되도록 했다
그것은 대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람들끼리의 전쟁
등등이었다.

나는 언제나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남아 있기를 원했다.
가령 대홍수 때에 - 그때의 오직 한 사람의 올바른 사람
인 - 노아 곁에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큰 재난 때에
도 나는 그 곁에 남아 있을 만한 올바른 사람을 언제나 발견
했고, 그를 통해 나는 그때의 사람들 가운데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되었다.

세상은 인류에 대한 내 무한한 인자로 그 타락에서 깨끗
해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만족을 느끼는 영혼들을 계속 선택해
서 그들을 통해 내 피조물인 사람들을 내가 만족스럽게 생각
할 수 있게 했다.

나는 세상에 메시아를 약속했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내가 무슨 일은 하지 않았느냐! 메시아가 오
기 수천년 전에 벌써 그를 나타내는 상징 속에 나를 보이면
서 말이다!

사실 그 메시아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그가 세상에
서 무엇을 하겠으며, 누구를 대신하려고 왔느냐?

메시아는 하느님이다.

- * 하느님은 누구시냐? - 하느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시다.
- * 메시아는 어디서 오셨느냐? 아니 그보다도 누가 그에게
사람들 사이에 가라고 명령했느냐? - 그의 아버지요 하느
님인 나다.

* 메시아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 그는 아버지를, 즉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루가복음 2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Nesciebatis quia in his, quae Patris mei sunt oportet me esse".>

"나는 오직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청하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은..." 또 다른 곳에서는, 그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
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알리기 위해 왔으므로 이렇게 말한
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 "nemo venit ad Patrem nisi per me" 요한 복음
14장 6절에.

"누구든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내 아버지와도 함께
있는 것이다" 등등.

"사람들아, 나는 영원으로부터 한가지 소원 밖에 가지지
않았다고, 즉 끊임없이 사람들 곁에 있기를 원해서 그들에
게 나를 알게 하고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고자하는 소원 밖
에 가지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라.

내가 방금 밝힌 이 소원에 대한 진정한 증거를 원하느냐?

내가 아버지와 형제와 신뢰하는 벗처럼 내 피조물인 사람들과 함께 살려 오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으면 내가 왜 모세에게 장막과 계약의 규를 지으라고 명했겠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를 잊고, 수많은 죄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런데도 그들의 아버지인 하느님을 기억하고 하느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유일한 소원을 기억하라고 나는 모세에게 내 계명들을 주어, 그것들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그들의 현재와 영원의 구원에 전념하는 무한히 인자한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게 했다.

이 모든 것이 망각 속으로 빠져 들어갔고, 사람들은 오류와 공포에 잠겼으며, 내가 모세를 통해 전해 준 것과 같은 계명들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악습에 어울리는 다른 법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더 쉽게 지키려고 했다. 그들은 내게 대해서 가진 지나친 두려움으로 나를 더 잊고 모욕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내 자녀들인 저 사람들에게 대한 내 사랑은 몇지 않았다. 그렇지만 성조들도 예언자들도 나를 알게 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나 자신이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천주성의 제 2위로 나 자신이 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사람들이 나를 알 것인가? 내 말을 들을 것인가?

내게는 미래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감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 자신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들은 내 곁에 있으면서도 내가 가 있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들은 내 아들이 베풀어 준 모든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통해 나를 학대할 것이고, 내 아들을 통해 나를 중상할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그만둘 것이냐? 아니다. 내 자녀들인 사람들에게 대한 내 사랑은 너무나 크다!

나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보다도 더, 아니 더 적절히 말하자면,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해라.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너무도 진실해서 만일 내 아들의 삶과 죽음과 같은 삶과 죽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데 내 피조물인 인간들중의 한 사람으로 충분했다면 나는 망서렸을 정도이다. 왜? 그것은 내 아들을 통해 나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대신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인간을 고통당하게 함으로 내 사랑을 배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로 내가 오기까지의 내 사랑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위에 말한 것과 같다. 이 모든 사건을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인 것은 모른다. 즉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인도했다는 것 말이다!

그렇다, 그것은 사랑이다, 너희들이 방금 읽은 이야기에서 너희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잊혀졌다.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게 되고, 너희들을 이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대해서 종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아라, 이 이야기는 제 1세기의 첫째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는 이것을 현재인 20세기까지 이끌어 오기를 원한다.

오! 아버지로서의 내 사랑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잊혀졌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지극히 다정스럽게 사랑

한다! 내 아들을 통해서, 즉 사람이 된 내 아들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또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나! 그 인성 안에서 천주성은 가려지고, 작아지고, 가난해지고 모욕을 당했다. 나는 내 아들 예수와 더불어 회생의 생활, 근로의 생활을 했다. 나는 사람이 닦아진 길을 가져 항상 정의 안에서 걸어 안전하게 내게까지 오도록 하기 위해 내 아들의 기도를 받아주었다.

물론 나는 내 자녀들의 약함을 이해할 줄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에게 내 자녀들이 쇠약해질 때에 몸을 지탱할 방법을 그들에게 주라고 부탁했다. 그 방법들은 그들이 아직 내 사랑의 자녀로 있도록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도와줄 것이다. 그것은 7성사이고, 특히 너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니,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고해성사를 통해서나 또 미사 성제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너희 위에 솟아나는 십자가이고, 내 아들의 피이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특별한 은총으로 그 이익들을 한껏 베풀어 주는 것이 20세기나 되었는데, 그 결과는 아주 미미하다! 내 아들을 통해 내 사랑의 자녀가 된 내 인간이 얼마나 많이 영원한 구령으로 아주 빨리 뛰어 들었느냐! 정말이지 그들은 내 무한한 인자를 알지 못했다. 나는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에우제니아 수녀가 좋아하고 자주 나오는 표현).

아! 너희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에게 말하고, 내 사랑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 자신이 온다는 것을 아는 너희들만이라도 낭떨어지로 뛰어내리지 말아라. 나는 너희 아버지이다!

나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게 너희들의 사랑을 표시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이 멸망하게 내버려둘 만큼 냉정하

고 무관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들 중에서 제일 착한 아버지이다. 나는 내 피조물인 인간들의 약함을 안다. 오너라,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뉘우침을 보고 용서하겠다. 비록 너희 죄가 진창과 같이 불쾌한 것이라도 너희의 신뢰와 사랑은 나로 하여금 너희 죄들을 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뭐라고! 내가 정의로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보상한다.

이봐라, 내 자녀들아, 가정을 하나 하자, 그러면 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이다. 내게는 너희들의 죄가 쇠와 같고, 내게는 너희들의 사랑의 행위가 금과 같다. 너희가 내게 쇠 1,000 킬로를 준다 하더라도 금 10킬로를 주는 것만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사랑을 조금 가지고도 엄청난게 많은 죄를 벌충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자녀인 사람들에게 대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대한 내 심판의 매우 약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내게까지 와야 한다. 나는 너희들 아주 가까이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도무지 심판을 받지 않거나 또는 지극히 적어도 무한히 자비로운 사랑으로 심판을 받도록 나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

의심하지 말아라! 만일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죄를 범하는 번수 만큼 세상을 전멸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목격하다시피 매순간 내 보호가 은총과 은혜로 나타난다.

그로부터 너희들은 모든 아버지들 위에 아버지가 한분 있고, 그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결코 너희들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나는 십자가와 성체라는 두가지 길로 너희들 가운데로 간다.

십자가는 내 자녀들 가운데로 내려가는 내 길이다. 그것은 십자가로 내 아들을 통해 너희들을 구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십자가가 내 아들을 향해 올라오는 너희들의 길이고, 내 아들에게서 내게까지 올라오는 길이다. 십자가 없이는 너희가 결코 올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죄로 하느님과 갈라지는 벌을 제 위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성체로는 아버지가 그의 가정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 나는 각 감실을 내 은총과 내 재산과 내 사랑의 저장소를 만들어 그것들을 내 자녀들인 사람들에게 주려고 내 아들이 성체를 세우도록 원했다.

또 이 두 길을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내 능력과 내 무한한 자비를 내려보낸다.

내 아들 예수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대리하고, 내가 그를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한 지금 나는 내가 내 성령을 통해서도 너희들에게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내 천주성의 이 제 3위의 일은 소리없이 행해져서 사람이 흔히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는 감실에 뿐 아니라 은총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 안에도 머물러 있어서 그 안에 내 옥좌를 세우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뒷받침해 주는 참 아버지처럼 거기에 늘 머물러 있는 데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내가 영혼과 단돌이서만 있을 때 내가 느끼는 기쁨을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 의인과 죄인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사랑받고 공경받기를 원하고

하느님 아버지로서의 내 마음의 무한한 소원을 지금까지 아무도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경의야말로 내가 가장 큰 죄인들에 대해서까지도 언제나 자비롭고 인자하기 위해 사람에게서 반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람이 아버지와 창조주와 구세주로서의 내게 드려야 할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아담에서 예수를 기른 아버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셉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백성에게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도 내가 그토록 원했고 지금도 원하고 있는 이 특별한 예배를 아직 내게 하지 않고 있다!

출애굽기에는 특별한 예배로 하느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특히 다윗의 시편에 같은 가르침이 들어 있다. 내가 모세에게 준 계명 맨 첫머리에 나는 이런 말을 넣었다. "다만 한분뿐이신 하느님을 흠송하고 완전히 사랑하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조화를 이룬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는 너희들에게서 아주 특별한 공경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때에 나는 나와 닮게 창조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은 내 마음과 같이 민감하고, 내 마음은 너희 마음처럼 민감하다.

내게 가까운 사람들이 너를 기쁘게 하려고 내게 어떤 조그마한 봉사를 했으면 너희는 무슨 일인들 안하겠느냐? 아무리 냉정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잊지 못할 감사의 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일방적으로 봉사를 한 데 대한 값으로 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것을 찾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과 같이 나를 공경하는 작은 봉사를 내게 하면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함으로써 너희에게 대해서 훨씬 더 감사하는 마음을 표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내 아들을 통해 나를 공경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아들을 통해 내게까지 올려보낼 줄을 아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 수는 아주 아주 적다! 그렇지만 내 아들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내가 내 아들 안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물론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도 영광이 된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창조주인 본을 특별한 예배로 공경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면 그럴수록 내 아들도 더 공경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내 아들인 내 뜻에 따라서 강생한 [말씀]이 되었고, 또 그를 보낸 본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 너희 가운데 갔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면 나를 사랑할 것이고, 또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희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구속의 신비로 내 자녀가 된 얼마나 많은 인간이 내가 내 아들을 시켜 모든 사람을 위해 세운 목장에 있지 않은지 보아라.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이 -너희들은 그들을 좀 안다- 이 목장들을 알지 못하는지 보아라. 또 나는 그 존재를 알고 있지만 너희는 모르는 내 손에서 나간 아주 많은 인간들이 그들을 창조한 손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하고, 또 내가 내 은혜로 그들에게도 그러할 것과 같이 전능한 아버지로서 나를 알게 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나는 내 율법으로 그들에게 더 즐거운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서 내게 대해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창조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말해 주어라. 특히 내가 그들을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해 주어라. 아! 나 너희들에게 약속하지만, 사람들은 더 빨리 회개할 것이다!

만일 초기교회 때부터 특별한 예배로 나를 공경하고 공경하게 하기 시작했더라면 20세기가 흘러간 후에 우상숭배와 외교주의와 거짓되고 나쁜 본파에서 사는 사람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라. 그 안에서 사람은 눈을 감고 달벼가 영원한 불구덩이로 뛰어든다! 그러니 얼마나 할일이 많이 남아 있는지를 생각해보아라!

내 때가 되었다! 그들을 창조한 후에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구세주가 되고, 마침내는 그들의 영원한 즐거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을 받고 공경을 받아야 한다!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들이 이미 아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내가 매우 인자한 아버지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며, 또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창조할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너희가 점점 더 확신하도록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알려지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특히 공경받기를 원한다는 것도 알아라. 모든 사람, 특히 죄인들과 병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고통 당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내 무한한 인자를 모든 사람이 알아보기를 바라며, 내가 다만 한 가지 소원만 가지고 있다는 것, 즉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 은총들을 주고, 그들이 늪우치면 용서하며, 특히 모두가 구원을 받아 내 선택된 사람들 가운데 있도록 내 정의로 심판하지 않고 내 자비로 심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 작은 설명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나는 너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그 결과는 영원한 것이다. 그 약속은 이런 것이다.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러라. 그러면 너희는 이 아버지에게서 사랑과 자비로 모든 것을 받을 것이다.

네 영신의 아버지인 내 아들이 내 영광을 돌보고, 내가 너더러 쓰라고 한 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써 넣고, 내가 너더러 또 쓰라고 할 것도 한 구절 한 구절 써 넣어서 사람들이 알기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그들이 쉽고 기분 좋다고 생각하게 할 줄을 알기 바란다. 그러나 아무것도 덧붙이지는 말아야 한다.

사람들에 대한 내 소원과 내 기쁨과 내 마음 괴로움을 내가 날마다 조금씩 네게 말해 주겠고, 특히 사람들에게 내 무한한 인자와 동정하는 내 사랑의 자애를 보여주겠다.

나는 네가 자유로운 시간을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데 보내고, 날마다 반시간씩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네 장상들이 허락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해서 너희가 자녀들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에게 대한 큰 신뢰에 이르도록 내가 그 형태를 알려 주려고 온 그 예배를 확대하는 데 내 자녀인 사람들의 마음이 힘쓸 용의가 있다는 약속을 받도록 네게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기를 원하는 이 사업이 할 수 있는대로 빨리 모든 나라에 퍼지면서도, 그것을 퍼뜨릴 책임을 진 사람들이 아주 작은 조심성 없는 짓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는 네가 날마다 정신집중을 하고 지내기를 부탁한다. 너는 인간들과 별로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기뻐할 것이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라도 마음 속으로 은밀히 내게 말을 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어찌다 너를 위해서 말을 할 때에는 내 속내이야기를 특별한 작은 수첩에 적어 두어라.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나는 사람들과 한 어머니가 자녀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보다도 더 친밀하게 산다.

사람을 창조한 때부터 나는 사람의 창조주와 아버지로서 그의 곁에서 사는 것을 한 순간이라도 결코 그친 적이 없었고, 나는 사람을 사랑할 필요같은 것을 느낀다. 사람이 내게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창조주로서의 내 사랑이 내게 사람을 사랑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 곁에서 살고, 나는 사람을 어디로나 따라 다닌다. 나는 무슨 일든지 그를 도와주고 모든 것을 보충해 준다. 나는 그의 필요와 그의 마음 괴로움과 그의 모든 욕망을 보며, 내가 가장 큰 행복은 그를 돕고 그를 구원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내가 무서운 하느님이고, 내가 온 인류를 지옥으로 떨어뜨린다고 믿고 있다. 세상 마칠 때에, 그들이 파멸했다고 믿던 많은 영혼이 선택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랄 것인가!

나는 내 모든 인간이 그들을 보살피고,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행복을 그들에게 미리 맛보게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를 원한다.

한 어머니는 자기가 방금 낳은 어린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낳아 준 모든 인간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 내 편에서 한층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그런데 어머니가 내가 그에게 준 이 조그마한 존재를 사랑하지만, 나는 내가 그 어린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어떤 때 한 어머니가 그의 아이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결점 때문에 그를 덜 사랑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반대로 그를 한층 더 사랑할 것이다. 어머니는 특히 아이가 나이

들어 그의 보살핌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를 잊거나 이따금씩 밖에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일까지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를 잊지 않겠다. 나는 항상 그를 사랑하고 그가 그의 아버지요 창조주인 나를 기억하지 않게 되더라도 나는 그를 기억하고 그를 아직 사랑한다.

나는 조금 아까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뜻은 이렇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버지라는 다정스러운 이름으로 부르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에서 너희들의 행복이 되고 너희들이 하늘에서 선택된 사람들과 더불어 노래할 사랑과 신뢰를 시작한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계속될 하늘의 행복을 미리 맛보는 것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그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자주 기억하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그가 살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그의 곁에 있다.

아! 나는 너희들에게 알리고자하는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얼마나 보기를 원하는지 모른다. 그 계획은 이런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은 내가 말하려는 이 즐거움을 그의 아버지인 하느님께 드릴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이에 큰 신뢰가 확립되기를 참다운 친밀의 정신과 동시에 내 큰 인자를 남용하지 않도록 세심함의 정신이 확립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의 필요와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탁 믿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같이 내게로 와서 너희 필요를 내

게 말하는 것을 내가보게 되면 나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느냐!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나 중요한 것이나 너희가 내게 청하면 어느것이든간에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거절할 수가 있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너희 안에서와 너희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어느 날 나를 믿은 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공로가 되는 일이겠느냐!

내가 직접 너희들 가운데 여기 와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알려지고 사랑받고 특별한 예배로 공경받기를 원한다고 가지가지 형태로 되풀이 해 너희에게 말하는 지금도, 다만 한 사람, 즉 내가 이 메시지를 불러주는 사람을 빼놓고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온 인류에서 오직 한 사람!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내가 보고 내가 말하는 그 사람 안에서 나는 너희 모두를 보고, 너희 모두와 각자에게 말하며,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과 같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각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느끼기를 바란다! 사람들아, 나는 인류의 희망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벌써 그렇지 않느냐? 만일 내가 인류의 희망이 아니면 사람은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와 신뢰와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그들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도록 하려면 내가 그런 분으로 알려져야 한다!

내가 사람들이 그림이나 책에 나타내는 저 무서운 늑은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다! 아니야! 나는 내 아들과 내 성령보다 더 젊지도 않고 더 늙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아버지와 친구로 부르기를 원한다. 그것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너희들이 나와 비슷하게 되게 하려고 나를

너희와 비슷하게 하나까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바란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사실 그런 것과 같이 나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주 부르도록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면 내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어린 영혼들 안에 내게 대한 아주 자녀다운 신뢰와 사랑을 넣어 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보기를 바라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나는 내 집에처럼 각 가정에 자리잡아 모두가 다음과 같이 아주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무한히 착하시고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시고 대단히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친히 부축해 주시며, 우리가 청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모두 주실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게 될 것이다." 하고. 나는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게 청하라고 일부러 여기 있다. "청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그런 것과 같이 모두가 나를 내 자녀들 가운데에서 사는 진짜 아버지로 생각할 줄을 알기만 하면 나는 아버지다운 내 인자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는 또 내가 내 "어린 딸" 에게 나중에 알게할 상본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내놓기를 바란다. 나는 각 가정이 나를 더 쉽게 공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아주 특별한 보호 아래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관계되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하나까 거기서 가정이 그 필요와 일과 고생과 소망과 기쁨까지도 날마다 내게 알려야 할 것이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마 그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솔직함을 몹시 좋아한다. 나는 너희 처지를 따를 줄을 안다. 나는 어린 아이들과는 어린 아이가 되고, 중년에 이른 사람들과는 중년이 되고, 노인들과는 그들과 같이 되어, 모두가

그들의 성화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에게 내가 말하고자하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내가 방금 너희에게 말한 것에 대한 증거를 너희와 같이 작고 약하게 된 내 아들에게서 얻지 않느냐? 또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보는 지금도 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하는 것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와 같은 보잘것 없는 인간을 골라서 그에게 말을 하지 않느냐?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너희와 같게 하지 않느냐?

보아라, 나는 내 왕관을 내 발 앞에 내려놓았고, 세계를 내 가슴에 안고, 내 영광을 하늘에 남겨두고 여기 와서 변갈아가며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과는 부자가 되었다.

나는 젊은이들을 다정스러운 아버지처럼 보호하기를 원한다. 세상에는 악이 하도 많아서! 경험 없는 이 가없는 영혼들이 악습의 유혹에 끌려가는데, 그 악습은 그들을 차츰 전적인 파멸로 이끌어 간다. 인생에서 너희를 지켜 줄 어떤 사람이 특히 필요한 너희들은 악을 피할 수 있기 위해 내게로 오너라! 나는 그 어느 다른 인간이 너희를 사랑할 것보다도 너희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이다! 내 곁으로 피해 와서 너희 생각과 너희 욕망을 내게 말해 다오. 나는 너희를 애정을 기울여 사랑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현재를 위한 은총을 주겠고, 너희의 미래에 강복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15년이나 20년이나 25년이나 30년 이래로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다. 오너라! 나는 너희에게 나와 같이 다정스럽고 무한히 인자한 아버지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매우 적절할 것이지만 나중에 말할 수 있을 다른 많은 말을 하느라고 누장을 부리지 않고, 이제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인 사제와 수도자들의 영혼에 아주 특

별히 말하고자한다. 내 사랑의 소중한 자식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 대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 황 여 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모든 사업중에서도 첫째이어야 할터인데도 마귀가 사람에게 불어넣어준 두려움 때문에 지금이야 겨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이 사업을 네 손에 맡기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먼저 내 대리자인 네게 말한다.

아! 나는 네가 이 사업의 범위와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 대해서 가진 엄청난게 큰 소원들을 네가 이해하기를 바란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특별한 예배로 사람들에게서 공경을 받기를 원하는지 너는 아마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소원을 나는 영원으로부터, 그리고 최초의 인간을 창조한 때부터 내 안에 간직하고 있다. 이 소원을 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번, 특히 구약때에 표현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이해한 적이 없다. 지금은 이 소원이 지금 온 세상의 내 인간들에게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 소원은 네게 모든 과거를 잊게 한다.

나는 나를 낳추어 내 인간들중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인간에게까지 간다. 이것이 무식한 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이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하고자하는 사업의 위대함을 그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 사람과 신학을 논할 수는 없다. 그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실패할 것이다.

나는 내 사업을 소박함과 순진함으로 할 수 있기 위해 그 사람이 그러하기를 허락한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이 사업을

연구하게 하고, 이 사업을 아주 빨리 실행에 옮기게 해야 한다.

알려지고 사랑받고 특별한 예배로 공경받기 위해 나는 특별한 것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이다.

첫째 - 하루 또는 적어도 주일에 한 번이 온 인류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주 특별하게 나를 공경하는 데 바쳐져야 한다.

나는 이 축일을 위해 고유의 미사와 성무일도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그 본문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일 너희들이 어느 주일에 이 특별한 예배를 내게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나는 8월의 첫째 주일을 택한다. 만일 너희들이 주종의 하루를 택한다면 나는 역시 같은 달의 7일을 골라잡는다.

둘째 - 모든 성직자는 이 예배가 발전하도록 전념하고, 특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또 언제까지나 그들 곁에 있을 그대로의 나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 즉 모든 아버지들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나를 말이다.

셋째 - 나는 성직자들이 나를 모든 가정과 병원, 작업장과 공장, 병사(兵舍), 만국장관회의장에까지도, 요컨대 내 인간들이 있는 곳, 다만 한 사람이라도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들어가게 해 주기를 바란다! 보이지 않는 내 현존의 깨달을 수 있는 표가 내가 실제로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본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그들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하게 될 것이고, 나 자신도 내가 창조한 후에 양자를 삼은 사람들의 눈 앞에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내 모든 자녀가 다정한 그들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 있는 것같이 될 것이다.

물론 나는 지금도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나는 깨달을 수 있게 표현되기를 바란다.

넷째 -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한 해 동안에 그들의 일상의 일에 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나를 공경하는 몇 가지 경건한 행사를 채택하기를 바란다.

내 사제들은 두려움 없이 사방 모든 나라로 내 아버지다운 사랑의 횃불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기 바란다. 그러면 -미신자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참다운 교회가 아닌 모든 교파중에서도 영혼들이 비춤을 받고 끌려 올 것이다. 그렇다, 내 자녀들인 그 사람들도 그 횃불이 그들 앞에서 빛나는 것을 보고, 진리를 알고 그것을 믿고, 모든 그리스도교적 덕행을 닦기를 바란다.

다섯째 - 나는 신학교와 수련원과 학교와 기숙사에서 아주 특별히 공경받기를 원한다. 가장 작은 사람에서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창조주, 그들의 구세주로 알고 사랑하기를 바란다.

여섯째 - 사제들은 성경에서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예배에 관해서 내가 예전에 말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채로 있는 것을 찾는 데 전심하기 바란다. 그들은 내 소원과 내 뜻을 모든 신자와 모든 사람에게 알리면서 내가 모든 사람 전체에 대해서와 특히 사제들과 수사 수녀들에 대해서 말할 것을 명시하기도 바란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공경을 내게 드리도록 내가 선택하는 영혼들이다.

내 인류에 대해서 품고 너에게 알려준 이 소원들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의 이 사업을 위해 자기를 봉헌할 너그러운 영혼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어느 날, 그렇다 어느 날 나는 만족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는 네게 강복하겠고, 네가 내 영광을 위해 할 모든 일을 백배로 갚아 주겠다.

주 고 예 계

나는 네게도 한 마디 하고자 한다! 내 소원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내 아들 알렉산델.

내 아들 예수의 "작은 풀" 의 영신의 아버지와 더불어 너희는 이 사업, 즉 내가 사람들에게서 기다리는 이 특별한 예배의 주창자가 되어야 한다. 내 자녀들인 너희에게 이 사업과 매우 중요한 이 사업의 장래를 맡긴다.

내가 내 모든 인간에게 알려지고 사랑받고 공경받기 위해 내가 말할 것을 말하고 강조하고 알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서 기대하는 것을, 즉 내 뜻을 행한 것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오랫동안 은밀히 간직했던 소원들을 실현한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영광을 위해 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성화를 위해 굶절이 되게 하겠다. 마침내 하늘에서, 다만 하늘에서만, 내가 너희에게 줄, 특히 너희와 이 같은 목적을 위해 힘쓸 모든 사람에게 줄 큰 상급을 너희가 볼 것이다.

나는 사람을 나를 위해 창조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는 내가 전부가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사람의 마음은 다만 나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그의 아버지요 창조주인 분 밖에서는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내 편에서도 내 피조물인 인간들에 대한 내 사랑이 너무도 커서 나는 사람

들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같은 기쁨은 아무것도 맛보지 못할 지경이다. 하늘에 있는 내 영광은 무한히 크다. 그러나 내가 내 자녀들, 즉 온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영광이 훨씬 더 크다. 저 위 하늘에서 너희가 영속적인 견신(見神)으로 나를 볼 것이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내 피조물인 너희들의 하늘은 내 선택된 사람들이 있는 천국에 있다. 오 사람들아, 내 하늘은 너희 모두가 있는 땅 위에 있다! 그렇다, 땅 위와 너희들의 영혼 안에서 내가 내 행복을 찾는다. 너희들은 이 기쁨을 내게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너희에게서 원하고 기대하는 너희들의 창조주요 아버지인 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의무이기도 하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 기쁨은 내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서 사는 동안 그와 함께 있을 때에 맛보던 기쁨과 마찬가지로 크다. 내 아들은 그를 보내는 나였다. 예수는 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 성령은 역시 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언제나 나였다.

너희들은 나인 내 아들처럼 사랑하면서 나는 내 피조물인 너희들에게 내 아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한다. 너희들은 내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같이 있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너희와 같이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해가 세상 위에 있는 것과 같다. 만일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각오를 잘하고 있으면 나는 너희 바로 곁에 오고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를 비추고 내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를 뜨겁게 하겠다.

죄의 지위에 있거나 종교의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인 너희의 경우에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너희들 곁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빛을 보고 죄를 고치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져다 주는 귀중한 것을 받기를 원하라고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부르고 권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너희가 처해 있는 불행한 처지 때문에 내가 너

희를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고, 어떤 때는 은총의 매력에 끌려 오도록 너희를 각오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바라본다. 때로는 어떤 영혼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그들 곁에서 며칠, 또는 몇 해까지도 지낸다. 그 영혼들은 내가 거기 있으면서 하루의 매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부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진력하지 않고, 그태도 언젠가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적어도 죽기 전에 내게 사랑의 행위를 몇 번은 할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너희 곁에 남아 있는 것을 내 기쁨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곧 죽을 영혼이 여기 하나 있다. 이 영혼은 내게 언제나 탕자같은 존재였다. (*)

나는 그 영혼에 재물을 많이 주었는데, 그는 그 모든 재산, 지극히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가 거저 주는 그 선물들을 낭비하고, 게다가 내게 증대한 모욕을 주었다. 나는 그를 기다리고, 어디에나 따라다녔다. 그리고 건강과 그가 여분의 것을 가질 만큼 내가 그의 일에 딸리게 하는 재물과 같은 새로운 특별매력을 그에게 주었다. 때로는 내 섭리가 그에게 또 새로운 재물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악습의 보잘것 없는 희망한 빛으로만 보았고, 그의 일생은 습관적인 사죄로 인해 과오로 찌어진 천과 같았다. 그러나 내 사랑은 절대로 지치지 않았다. 나는 그태도 그를 따라다녔고,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특히 그가 내게 거절하는 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가 아마

(*) 에우제니아 원장의 주 : 나는 이 예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았다.

내 사랑을 듣고, 그의 아버지요 구세주인 내게로 돌아올 것
이라는 희망으로 참을성 있게 그의 곁에서 사는 것이 기뻐다.

마침내 그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온다. 나는 그가 정
신을 차리고 아버지인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병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고, 74세가 된 내 가엾은 아들
은 그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거기에 있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인자하게 그에게 말하고, 애원하고, 내가 그에게 제공하는
용서를 청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내 선택된 사람들을
불렀다... 그 순간 숨을 거두기 전에 그는 눈을 뜨고 그의
미망(迷妄)을 인정하고 내게까지 인도하는 참된 길에서 얼마
나 멀리 떨어졌었는지를 알아차렸다. 그는 반성을 하고, 주
위 사람들중에서는 아무도 듣지 못한 가는 목소리로 내게 이
렇게 말했다.

"오 하느님, 이제는 제게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컸
고, 제가 그토록 나쁜 생활로 당신께 끊임없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저는 제 아버지이시고 제 구세주
이신 당신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시다. 이제는 당신이
제 안에서 보시고 저도 부끄러워하며 인정하는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제가 당신께 용서를 빈다는 것과 제 아버지이시며 제
구세주이신 당신을 제가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에 죽어서 내 앞에 와 있다. 나는 그가
나를 부른 것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심판하니,
그는 구원을 받았다. 그는 얼마 동안 속죄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살아 있는 동안은 그의 뉘우침으로 그를 구하리라는 회
망으로 좋아한 다음 내 소원을 이루어 영원히 그의 아버지가
된 것을 내 신하들과 더불어 한층 더 기뻐한다.

정외와 거룩하게 하는 은총 속에서 사는 영혼들로 말하면

나는 그들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내 행복으로 생각한다. 나는
나를 그들에게 준다. 나는 그들에게 내 능력의 사용을 맡기고,
또 내 사랑으로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요 구세주인 내게서 천
국을 미리 맛본다!

메시지의 첫째 공책은 이렇게 끝난다.

*** *** ***

- 우리 아버지의 메시지 둘째 공책 -

둘째 공책은 1932년 8월 12일에 시작된다.

어느 날 마귀가 그 공책을 빼앗아다가 가위로 위쪽을 찢
었다.

"나는 오늘부터 그리고 세상 마칠 때까지 절대로 마르지
않을 맑은 물이 솟아 나오는 샘을 터지게 하려고 왔다. 나는
내 피조물인 너희에게 내 자녀인 너희에 대한 사랑에 열중한
마음속을 보이려고 왔으며, 나는 너희가 내 무한하고 자비로
운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게는 너희들에게 내 사랑
을 보여준 것으로 넉넉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
주기도 원한다. 내 마음에서는 시원하게 하는 샘물이 흘러나
와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갈증을 풀 것이다. 그 때에는 그들
이 그들의 아버지인 내게 대해서 가졌던 지나친 두려움의 엄
청난 무게 때문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기쁨을 맛볼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약속한 때부터 이 샘을 솟아나게 했고 - (나는 이 샘을 아버지께서 거기 대한 말씀을 내게 해주신 뒤로 날마다 본다) - 나는 그것을 내 아들의 마음을 통해 지나가서 너희에게까지 이르게 했다. 그러나 너희에 대한 내 한없는 사랑은 나로 하여금 내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그 물이 솟아나올 내 가슴을 뚫음으로 한층 더한 일을 하라고 시킨다.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현세와 영원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길어 가도록 허락한다.

만일 너희가 내가 말하는 이 샘물의 힘을 시험하기를 원하면, 우선 내가 바라는 정도까지, 즉 너희들의 아버지로서뿐 아니라, 너희들의 친구와 너희와 비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도록 배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내 모습을 닮게 창조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이고 너희 창조주이며 너희 하느님인 분에게 말하고 그분과 친숙해질 때에 너희가 아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너희를 내 모습대로 만들었다. 사실 너희들은 내 자비로운 인자로 아버지와 하느님으로서의 내 사랑의 자녀들이 된 것이다.

나와 내 아들이 다만 하나에 지나지 않게 하는 저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결합시켜 놓는 성령인 우리 서로의 사랑으로 내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의 안에 있으니.

내 아들 예수는 그 샘물의 저장소에서 구원의 물이 넘치도록 항상 가득 차 있는 그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물을 길으러 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내 아들이 너희에게 솟아나오게 하는 샘물이 시원하게 하고 기분좋은 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 내 아들을 통해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내 곁에 오거든 너희들의 소원을 내게 말

해라.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게 함으로써 그 샘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너희의 갈증이 풀려 시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병이 나을 것이고, 너희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의 기쁨은 클 것이고, 너희의 사랑이 지금까지 일찍이 맛본 적이 없는 휴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보고 저희가 어떻게 당신께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겠지. 아! 신뢰의 길로 와서 나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영과 진리로 사랑해라. 그러면 시원하게 하고 아주 힘있는 그 물이 너희의 목을 축이게 되기에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데 너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그 샘물이 주기를 정말 원하고, 또 너희가 냉담하고 무관심하다고 느끼거든, 나를 그저 아버지라는 다정한 이름으로 부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내 샘물은 너희에게 사랑과 신뢰와 너희 아버지요 창조주인 내게서 항상 사랑받는 데 부족한 것을 모두 줄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너희 모두가 내 인자와 내 애정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너희 모두에게 나를 알리기를 원하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도가 되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내 곁에서 영원히 누릴 큰 영광을 마련하면서 너희의 일과 노력에 강복하겠다!

나는 사랑의 큰바다이다. 내 자녀들아, 너희 나이와 지위와 나라가 어떠하든지 예외없이 너희 모두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다른 증거가 여기 있다. 나는 여러 가지 사회, 교파, 신자, 미신자, 믿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까지도 제외하지 않고, 그 전체가 인류를 이루는 모든 사람을 이 사랑 속에 포함한다.

그 증거는 이런 것이다. 나는 사랑의 큰바다이다. 나는

너희의 목마름을 풀어주기 위해 내 가슴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너희에게 알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너희에 대해서 얼마나 인자한지 너희가 맛보도록 보편적인 내 사랑의 큰바다를 너희에게 보여서 너희로 하여금 눈 딱 감고 거기에 뛰어들게 하겠다! 왜? 그것은 이 큰바다에 잠기면, 악습과 죄로 쓴 물방울이 된 영혼들이 이 사랑의 목욕물 속에서 지나치게 쓴맛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영혼들은 더 낮게 되고, 착하고 사랑을 가득 가지도록 배운 것을 기뻐하면서 그 바다에서 나올 것이다. 너희 자신이 몰라서나 약해서 쓴 물방울의 상태에 다시 떨어지더라도 나는 아직도 그 쓴 물방울을 받아 사랑과 인자로 바꾸고, 너희를 너희 아버지인 내가 그런 것과 같이 거룩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랑의 큰바다로 있다.

내 자녀들아, 이 세상에서 너희 일생을 평화와 기쁨 속에서 보내기를 원하느냐? 와서 이 무한히 넓은 큰바다에 뛰어들어라. 그리고 너희 생활을 일로 사용하면서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그 생활이 사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내 자녀들로 말하면, 나는 더군다나 더 자애로운 내 특별한 사랑으로 감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빛나는 빛을 향해 눈을 뜨게하기를 원한다.

지금은 영원으로부터 예정되고 기다려지는 은총의 때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서 친히 여기 와 있다. 나는 아버지들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오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내게로 들어올리고 너희 구원을 확보해 주기 위해 나를 낮추고 나를 잊는다. 오늘 살고 있는 너희 모두 그리고 허무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마칠 때까지 대대로 살 너희들도 너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버지보다 더 높은 아버지가 너희 곁에서 살고, 너희 안에서 까지 살며, 너희들을 생각하고, 그의 사랑의 비할데 없는 특권에 참여하

라고 너희에게 제의한다고 생각해라. 아버지로서의 내 가슴에서 항상 솟아나올 샘물에 가까이 오너라. 몸에 좋은 이 물의 단맛을 맛보아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너희 영혼에 대한 그 물의 모든 미묘한 능력을 느끼고 나서는 내 사랑의 큰바다에 와서 뛰어들어 다만 내 안에서만 살고, 내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너희 자신에게 죽도록 해라."

에우제니아 수녀의 주

우리 아버지께서는 친밀한 한 대화에서 내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샘은 나를 앎의 상징이고 큰바다는 내 사랑과 너희들의 신뢰의 상징이다. 너희가 이 샘물을 마시기를 원하면 나를 알기 위해 나를 연구해라, 그리고 나를 알게 되거든 너희를 변화시키고 내가 저항할 수 없을 신뢰로 나를 믿으면서 내 사랑의 큰바다로 뛰어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죄를 용서해 주고 가장 큰 은총을 잔뜩 베풀어 주겠다."

메시지의 계속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진리를 믿고 성경이 다음과 같이 말한 이 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서 공경과 사랑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런 다음 "왜?" 라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한다. "하느님만이 영원히 존경과 사랑과 찬미를 받을 만하시기 때문이다!"

모세는 나 자신에게서 십계명 중의 첫째로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이 명령을 받았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흠송해라!"

이미 그리스도교인인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희는 주의 기도에서 자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말씀드리니까 저희가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나 입교한 때부터 사랑합니다" 하고. 내 자녀들아, 그렇다, 너희가 주의 기도의 첫째 소원을 말할 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소원들을 계속해라, 그러면 너희가 알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내 이름이 거룩히 빛나느냐? "그 나라가 임하시며!" 내 나라가 임했느냐?

너희가 너희 열심을 다해서 내 아들 예수의 왕권을 존경하는 것은 사실이고,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공경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를 "임금님" 이라고 선언하는 그 큰 영광이나 적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알고 사랑하도록 나를 군림하게 하는 그 큰 영광을.

나는 내 아들이 빌라도 앞에서와 그의 거룩하고 죄없는 인성에 매질을 하던 병사들에게서도 받은 모욕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왕권의 축일을 너희들이 지내기를 바란다. 나는 그 축일을 중단하기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열과 열심으로 그 축일을 지내기를 당부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말 이 왕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알게 되려면 이 왕의 아버지이며 이 나라를 만든 분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내 자녀들아, 내가 내 아들을 시켜 세우라고 보낸 그 사회인 교회는 정말로 이 교회를 만든 본인 너희 아버지요 너희 창조주를 공경하게 함으로 내 사업을 보충할 것이다. 내 자녀들인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교회는 끊임없이 커졌고,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 교회가 완전하다는 넉넉한 증거입니다.

다! 하고. 내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가 교회를 시초에서부터 항상 보살폈고 또 내 아들과 성령과 일치협력해서 내 대리자인 교황을 통해 교회가 그르칠 수 없기를 원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즉 다정하고 자비로우며, 인자하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알면, 그들이 한층 더 씩씩하고 진실하게 이 거룩한 종교를 실천하리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너희 모두를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너희 모두를 구별 없이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는 이 아버지를 알면 너희가 나를 애정 넘치는 아들들처럼 사랑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내게 바치는 이 사랑이 내 충동을 받아 행동하는 사랑이 되어 아직 그리스도인의 이 사회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창조한 분이고 그들의 아버지인 분은 더욱 알지 못하는 인류의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지 않겠느냐?

만일 누가 그들의 미신에 빠져든 저 모든 사람이나 내가 그들 곁에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을 부르는 다른 많은 사람에게 가서 그들의 창조주는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살피며, 많은 고통과 버려진 상태 가운데에서 그들을 간절한 애정으로 감싸 주는 그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고 말하면, 그는 가장 고집센 사람들의 회개까지도 얻을 것이고, 더 많은 그 회개는 더 견실한, 즉 끈기있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람들 가운데 와서 이룩하는 사랑의 사업을 검토하면서 여기서 비난할 거리를 찾아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저 먼 나라에 가 있는 때부터 미신자들에게 하느님과 그분의 인자와 자비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줄곧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하느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선교사들은 그들 자신이 나를 아는 한도내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내게 대해서 가진 사랑, 두려움으로 인해서 왜곡된 사랑을 고치기 위해 나를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그리고 아버지들 중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로 선언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너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이 세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쉽게 해서 뒤이어 하늘에서 아주 하느님다운 생활을 준다는 그의 유일한 소망을 알리기를 원하는 그들의 유일한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일생을 보내는 것을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섭게 공정한 하느님에 대해서 가진 생각을 고쳐 주기 위해 내 피조물인 인간들과 비슷하게 되려고 왔다.

나는 영혼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너희들도 너희가 내게 대해서 가진 생각의 범위를 지나서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내가 이 빛을 너희에게 주는 지금은 이 빛 속에 머물러 있고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가져다주어라. 그것이 회개들을 얻는 강력한 수단일 것이고, 가능한 일이면 지옥의 문을 닫기까지 하는 강력한 수단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약속을 여기서 되풀이 하기 때문인데, 그 약속은 이런 것이다.

"다만 한번 만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선택된 사람들과 더불어 확실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또 내 영광에 힘을 기울이고 나를 알게 하고 공경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려고 애쓸 너희들에게는 너희들의 상급이 클 것이라곤 내가 확약한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할 가장 작은 노력까지도 내가 계산을 해서 영원에서 모든 것을 백배로 돌려주겠다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성교회는 그 사회를 만

들어내신 분, 그 사회를 세우려 오신 분, 그 사회의 생명이신 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로 되어 계신 하느님을 아주 특별히 공경함으로써 예배를 보충해야 한다.

세 위께서 교회와 인류 전체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예배로 공경을 받지 않으시는 한 이 사회에는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결함을 몇몇 영혼에 벌써 느끼게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너무 겁이 많아서 내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다른 영혼들은 여기 대해 담당자에게 말하는 기력을 가졌었다. 그러나 실패를 하고는 버티어 나가지 않았다. 이제는 내 때가 되었다. 나는 내 자녀인 사람들이 지금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그들에게 친히 알게 하려고 왔다. 나는 나 자신이 사랑의 법의 뜨거운 불을 가져다 주어, 이 방법으로 인류를 감싸고 있는 엄청난게 두꺼운 얼음의 층을 녹여서 없앨 수 있으려고 왔다.

오 사랑하는 인류야! 오 내 자녀인 사람들아, 나오너라, 오직 사랑뿐인 아버지께 대한 공포로 마귀가 이제까지 너희를 묶어 놓은 구속에서 나오너라!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께로 가까이 올 권리가 있다. 너희 마음을 넓게 하고, 내 아들에게 기도해서 너희들에 대한 내 인자를 점점 더 잘 알게 해달라고 청해라.

미신과 마귀의 지배에 갇혀 있는 너희들아, 그 압제적인 노예상태에서 나와 진리중의 진리로 오너라,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 아버지인 본을 알아보아라.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어 무익한 삶을 보내게 한 자들에게 송배와 경의를 드리면서 너희 권리를 쓰는 것이라고 우기지 말고 내게로 오너라. 너희들 모두가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모두를 기다린다.

그리고 참된 빛 속에 있는 너희들은 진리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분좋은지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또 저 그리스도

인들에게, 네 자녀들인 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마련하고, 무한히 착하고, 쉽게 용서할 줄을 알고, 벌은 그저 마지 못해서 천천히만 하는 아버지가 한 본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는 일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를 말해주어라. 끝으로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생활의 괴로움 속에 혼자 공로 없이 있게 내버려두기를 원치 않으니 내게로 오라고 말해라.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 주고, 그들의 몹시 힘든 생활을 완화하고, 그들을 내 자애로운 사랑으로 취하게 해서 현세와 영원에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또 믿음을 잃고 어두움 속에서 사는 내 자녀인 너희들은 눈을 들어라, 그러면 환한 빛살이 너희를 비추러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나는 비추고 뜨겁게 하고 다시 데우고 하는 태양이다. 나를 쳐다보고, 내가 너희 창조주이고, 너희 아버지이고, 너희의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구원되도록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나는 내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이 부름을 울려 퍼지게 해서 온 세상 사람에게 호소한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는 이 무한한 사랑은 하나의 항구적인 현실이다.

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항상 사랑해라, 그러나 오늘부터 당장 모든 사람에게 너희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보일 수 있게 이 아버지를 사랑하게도 해라.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들인 너희 사제들과 수도자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사람과 특히 너희들에 대해서 느끼는

이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알게 하라고 권한다. 너희들은 내 뜻이 사람들에게서와 너희들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힘쓸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뜻은 내가 알려지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다. 나는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있으니 내 사랑을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는 채로 내버려두지 말아라! 지금은 모든 세기중에서 특은받은 세기이다. 이 특은이 너희들에게서 빼앗아질까 염려스러우니 이 특은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지 말아라! 영혼들에게는 하느님의 어떤 접촉이 필요한데, 시간이 촉박하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나는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일을 도와주겠고, 너희들을 항상 부축하겠으며, 너희 성직과 너희 열성의 일에 성과를 거두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부터 영혼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하겠다. 평화와 기쁨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상급을 기다리는 동안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니까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선물이다.

세상에서 나를 대신하는 내 대리자인 교황에게 나는 먼 나라에서 선교하는 사도직에 대한 아주 특별한 매력을 전해 주었고, 특히 내 아들 예수의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계적인 것을 만드는 일에 대한 매우 큰 열성을 전해주었다. 이제는 그 같은 예수가 세상에서 완수하려고 온 사업을 그에게 맡긴다. 그것은 내 피조물들이고 내 자녀들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림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만일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과 그의 소원과 그의 영광을 속속들이 알았더라면 그의 가장 열렬한 소원이 자기를 보내신 본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특히 이제까지 그렇게 된 것과 같이 줄어든 영광을 아버지께 남겨드리지 않고, 사람이 아버지요 창조주로서의 내게 드릴 수 있는 또 드러야 하며, 그들의 구속을 이룩하신 분으로서의 내게는 한층 더 드릴 수 있고 드러야 하는 것과 같은 전적인 영광을 드러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볼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가 내게 줄 수 있는 것, 즉 그의 신뢰와 사랑과 감사이다. 내게 내 피조물이나 그의 흠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알려지고 공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영광을 나누어주기 위해 나를 그에게로 낮추는 것이다. 이것은 또 내 인간자와 내 사랑이 내가 허무에서 끌어내서 참자녀로 맞아들인 인간들이 마귀들과 함께 많은 수가 영원한 불행에 빠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들의 현재와 영원을 잃으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가 특히 지금 이 시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의인들의 열심이 더해지는 것, 죄인들이 아주 쉽게 회개하는 것, 진실하고 꾸준한 회개, 탕자들, 특히 유대인들과 이교인(離敎人)들, 이단자(異端者)들, 프리메이슨단원들, 불쌍한 미신자들, 신앙심 없는 사람들, 여러 가지 교파와 비밀 파당 같이 역시 내 피조물들이고 내 자녀들인 탕자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실건 줌건간에 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이요 창조주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들의 무지에 이중으로 말할 이 하느님이 그들에게서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읽으면서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내 말을 믿어라. 만일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 그들의 창조주이고 그들의 하느님이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장 고집센 사람들 가운데에서 까지도 너희가 그들에게 말할 이 아버지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가 만일 직접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면 방법들을 찾아보아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수많은 술책을

일관된 정신과 큰 열성으로 사용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노력이 은총으로 인해 커다란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을 약속한다. 내 아버지다운 인자의 사도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모두에게 줄 열성으로 너희들은 영혼들에 대해서 힘센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들 곁에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겠다. 만일 너희가 두 사람이 말하면 나는 너희들 사이에 있겠고, 너희가 더 많으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넣어줄 것을 말할 것이고, 나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사랑에 젖어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과 같이 나를 공경하는 방법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다만 큰 신뢰만을 요구할 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서 고행과 몸을 축내는 것 따위를 기대한다고 믿지 말고, 너희더러 맨발로 다니라거나 얼굴을 먼지 속에 박고 엎드리라거나 재를 뒤집어쓰라거나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소박함과 내게 대한 신뢰로 내 곁에 너희들의 어린이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고 또 좋아한다.

너희들과는 내가 모두에게 가장 다정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모든 것이 되어 주겠다. 나는 나를 모두에게 주고 너희를 영원을 위해 크게 되게 하기 위해 나를 작게 함으로써 너희 모두와 친숙하게 되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사회의 대부분이 그들의 불경건과 불신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고, 그들이 마치 제 권력에 둘러싸이고 교만으로 인해 그의 부하들과 거리를 둔채로 있어 그들에게 존경과 헌신을 강요하는 압제적인 주인 밑에 있는 노예들과 같이 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내 자녀들아,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천배나 더 나를 작게 할 줄을 안다! 그러나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내 교회에 준 내 계명들을 충실히 지켜서 너희가 이성 있는 인간들이 되고, 너희들의 규율없음과 나쁜 경향으로 짐승과 비슷하게 되지 않아서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준 너희 영혼이라는 그 보물을 내가 장식해준 숭고한 완전한 아름다움 속에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바라는대로 특별한 예배로 나를 공경하도록 이미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것을 해라. 이것으로 인해 너희들은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고 너희에게 내 능력과 내 영광에 폭넓게 참여하게 하려는 내 뜻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만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며,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 대신 너희들에게서도 사랑을 받고자 하는 내 유일한 욕망을 너희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만일 너희가 호성스럽고 신뢰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은 내 교회와 내 대리자들에 대해 사랑과 순종이 가득한 존경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무섭게 하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내게서 거리를 두고 멀리 있게 하는 것과 같은 존경,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짓 존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정의에 대해서 행하는 불의(不義)이고, 내 마음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며, 너희들에 대한 내 자애로운 사랑에 대한 망각이고 멸시이다.

내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를 가장 슬프게 했고, 현재의 인류에서도 아직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내게 대해 잘못된 이해된 존경이다. 과연 사람들의 원수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우상숭배와 이교(異敎)에 빠지게 했다. 사람들의 원수는 너희를 진리와 내 교회와 내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너희에 대해

지금도 아직 그것을 이용하고, 언제나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아! 이제는 원수에게 끌려가지 말고, 방금 너희에게 알려진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빛을 받으며 나아가라.

가톨릭교회 밖에 있는 내 자녀들인 너희들은 너희가 내 자애로운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들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다정스럽게 부른다. 너희가 지금까지 마귀가 너희에게 파 놓은 함정에 빠져서 살았으니 그가 너희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너희 아버지인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너희들이 태어난 종교 말고 다른 종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도 그 종교가 참된 것이 아니니 눈을 떠라. 너희 아버지,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여기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진리와 더불어 구원을 가져 주려고 너희에게 온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내가 너희들에게서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버지와 창조주로, 또 구세주로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이 무지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 만큼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

내 사랑으로 너희들을 창조하고 양자를 삼은 다음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혼자 내버려둘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어디에나 따라다니고, 내 무한한 인자에 대한 너희들의 망각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너희들에 대한 내 큰 너그렁음의 증명이 되도록 나는 모든 일에 너희들을 보호한다. 너희들의 망각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연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죽게 한다". 이제 은총과 빛의 때가 왔다! 그러므로 내가 오직 한 분뿐인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아라.

이 세상에서와 내세에서 참된 행복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나는 너희들이 내가 이 빛으로 너희들에게 제안하는 것을하기를 바란다. 때는 유리하니 그토록 뚜렷하게 너희들의 마음에 제공되는 사랑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라. 그 방법으로 나는 모두에게 전례에 의한 미사참여를 부탁한다. 이것이 내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한다!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희들에게 다른 작은 묵상기도들을 말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워 주기를 원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나를 공경하는 뜻으로 축일을 하나 제정하고, 너희들의 아버지요 창조주요 인류의 구세주인 하느님의 참된 자녀들의 순박함으로 나를 섬김으로써 나를 공경하는 일일 것이다.

사람들에 대한 내 자애로운 사랑의 다른 증거가 여기 있다. 내 자녀들아, 나는 내 무한한 사랑의 위대함을 모두 말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펴고, 십자가상과 감실과 성체를 쳐다보기만 하면 넉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 대한 내 뜻을 채워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또 이제부터는 내가 더 잘 알려지고 사랑받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는 내 사랑의 사업의 기초에 지나지 않는 이 몇 마디 말을 끝내기 전에 나는 너희들에 대한 내 사랑의 수없이 많은 증거중의 몇 가지를 너희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사람이 진리 안에 있지 않은 한 그는 참된 자유를 거의 맛보지 못한다. 그것을 실행하라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그 참을 법 밖에 있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기쁨과 평화를 누린다고 믿고 있으나 마음 속으로는 너희들 안에 참평화도 없고 참 기쁨도 없으며, 너희들을 창조하고 너희들의 하느님이요 아버지

이신 본의 참된 자유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참된 율법을 지키는, 아니 그보다도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준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너희들도 약속으로 악에 끌려 갔다. 너희들은 너희의 나쁜 행실로 율법에서 멀어졌다. 너희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너희들의 쾌락과 너희들의 인간적인 다른 기쁨들을 찾으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마침내 만족을 느끼리라 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말해줄 터이니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인 하느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 내 멍에를 메지 않는 한 결코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질 못할 것이다! 왜?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나를 알고 자기 아버지를 섬기는 순박하고 신뢰하는 어린아이처럼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이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아버지인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나타내는 아무런 표도 보존하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품위에 그들을 올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때로는 내가 무서운 엄격을 가진 것을 보여야 했다. 나중에 그중 몇몇이 그들과 짐승들 사이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을 만큼 본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아직 그들의 품위를 인정하고 보존할 줄을 알지 못할 사람들에게 대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은 완전한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든 완전으로 꾸며져 있었다. 내 아들이 그 사람들에게 완덕의 길을 닦아 주려고 갔고, 내 아들을 통해 너희들을 내 무한한 사랑으로 참된 아들로 택했으며, 그때부터는 너희를 "피조물" 이라는 단순한 이름으로 부

르지 않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나는 구약의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을 짐승들과 구별할 뿐 아니라 저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려주는 참다운 새 율법의 정신을 너희에게 부여했다. 나는 너희 모두를 하느님의 자녀의 품위에 올렸다, 그렇다,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고, 너희들은 나를 너희 아버지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해라, 그 신뢰가 없으면 너희는 절대로 참다운 자유를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방금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은 내가 이 사랑의 사업을 통해 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너희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가지고 있는 압제적인 노예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에게 참 행복이 흘러나오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참 행복과 비교하면 세상의 모든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품위를 향해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들의 위대함을 존중할 줄을 알아라. 그러면 나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비로운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이 사랑의 사업과 더불어 평화를 가지고 왔다. 누가 나를 공경하고 나를 신뢰하면.

특히 그가 나를 그의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는 그의 모든 재난과 모든 불안과 가지가지 고통과 슬픔 중에 그에게 평화의 빛살을 내려보내겠다. 만일 가정들이 나를 그들의 아버지로서 공경하고 사랑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 평화를 보내겠고, 내 평화와 더불어 내 섭리도 보내겠다. 만일 근로자들과 실업가들과 다른 여러 가지 장색(匠色)들이 내게 기도하고 나를 공경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 평화와 내 힘을 주겠고, 내가 인자하고 자비로운 아버지임을 보여주겠다. 어떤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나 내게 기도하고 나를 공경하면 나

는 내 평화를 주겠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로 보여 주겠으며, 내 능력으로 영혼들의 영원한 구원을 확보해 주겠다.

만일 온 인류가 내게 기도하고 나를 공경하면, 나는 온 인류 위에 평화의 정신을 단 이슬과 같이 내려보내겠다.

만일 모든 나라가 나라로서 내게 기도하고 나를 공경하면 결코 분쟁과 전쟁이 없을 것이다. 나는 평화의 하느님이고, 내가 있는 곳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느냐?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적에 대해서 성공리에 승리를 거둘 것이다.

요컨대 너희는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나는 이 능력을 너희가 현재와 영원을 위해 쓰라고 너희 모두에게 제공한다. 너희가 내 자녀임을 보여주지만 하면 나는 언제나 너희 아버지임을 보여주겠다.

이 사랑의 사업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냐?

나는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을 나는 완전히 그리고 충만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창시자인 이 거룩함을 나는 내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주고, 내 아들의 공로로 너희 영혼 안에 그것을 회복한다.

나는 내 아들과 성령을 통해 너희들에게로 너희들 안으로 가고, 너희들 안에서 내 휴식을 찾는다.

어떤 영혼들에게는 "내가 너희들 안으로 간다"는 이 말이 수수께끼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수수께끼는 없다! 내 아들에게 성체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너희가 성체를 모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 안으로 가기로 정했으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성체 이전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도 없

었다.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 성사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쉽고, 내가 어떻게 너희 안으로 가는지를 너희에게 설명해 주는 행동이다!

내가 너희들 안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내게 청하기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더 쉽게 너희에게 준다.

이 성사로 너희들은 나와 밀접하게 결합하고, 이 긴밀한 관계에서 내 사랑의 발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너희 영혼 안에 퍼뜨리게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넘쳐 흐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필요한 덕행들과 완전을 내게 청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의 마음 속에서 쉬시는 이 시간에 너희에게 아무것도 거절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너희가 내 휴식의 장소를 알았으니, 그 장소를 내게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요 너희 하느님인데, 너희가 감히 그것을 내게 거절하겠느냐? 아! 그를 위해서 너희에게 이 한 가지 후의만을 청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 잔인한 행위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끝내기 전에 나는 나를 섬기겠다고 봉헌된 몇몇 영혼에게 내 소원을 표명하고자한다. 이 영혼들이란, 너희들 사제와 수녀와 수사들이다. 너희들은 관상로나 자선사업과 사도직 사업으로 나를 섬기는 데 전념하고 있다. 내 편에서는 내 인자의 특권이고, 너희 편에서는 너희들의 착한 뜻에 의한 소명에 대한 충실이다. 내가 인류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더 쉽게 이해하는 너희들은 내가 모든 영혼 안에서 내 사랑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기도해라. 너희들은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해 이겨야 하는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 얻어 주는 일을 쉽게 해 줄 유효한 방법이 여기 있다. 그 방법이란 바로 나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가 제일 먼저 시작하기를 바란다.

나로서는 우선 사제들과 수사들과 수녀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내 사랑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아버지로서 있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냐! 너희와 더불어 나는 친구들과 절친한 사람들과 하듯이 이야기를 나누겠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조심성있는 비밀이야기를 주고 받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무슨 일에든지 너희에게 넉넉할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겠다! 나는 특히 너희 소원을 들어주고, 너희에게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보편적인 애정을 가득 채워 주는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맛보기를 바라는 이 기쁨을 내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것을 백배로 갚아주마. 그리고 너희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므로 나도 내 나라에 너희들에게 큰 영광을 마련함으로써 너희들을 명예롭게 하겠다! 나는 빛중의 빛이다. 이 빛이 뚫고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과 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 빛은 손레자와 회외적인 사람과 무식한 사람을 비출 것이다. 어둠과 악습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아, 이 빛이 너희 모두를 비출 것이니, 만일 너희가 내 빛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의 구렁렁이에 빠질 것이다!

끝으로 이 빛은 아직 미신의 희생이 되어 있는 그의 가없는 자녀들을 위해 참다운 가톨릭교회로 인도하는 길을 비출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인 불쌍한 나병환자들의 아버지임을 보여주겠다!(1)

(1) 주 : 나 (파 신부) 는 이 글을 1995년 6월 5일 월요일에 읽었다. 어제 6월 4일 주일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나환자들의 영웅적인 사도인 다미안 신부의 장엄한 시복식이 있었다.

나는 일체의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배제된 저 모든 사람의 아버지임을 보여주겠다. 나는 몹시 슬퍼하는 사람들의 아버지, 병자들, 특히 임종하는 사람들의 아버지임을 보여주겠다. 나는 모든 가정, 고아, 과부, 죄수, 노동자, 그리고 젊은이들의 아버지임을 보여주겠다. 나는 모든 필요사에 아버지임을 보여주겠다. 끝으로 나는 왕들과 그들의 나라의 아버지임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이 인자를 느낄 것이고, 너희 모두는 내 보호를 느낄 것이며, 너희 모두는 내 능력을 느낄 것이다!

모두의 아버지요 하느님인 내 강복을 받아라, 아멘!
 특히 내 아들이며 대리자에게 주는 강복을, 아멘!
 특히 내 아들 주교에게 주는 강복을, 아멘!
 특히 내 아들인 네 영신의 아버지에게 주는 강복을, 아멘!
 특히 내 딸들인 네 원장들에게 주는 강복을, 아멘!
 그리고 내 사랑의 온 수도회에 주는 강복을, 아멘!
 그리고 온 교회와 온 성직계급에 주는 강복을, 아멘!
 연육의 교회에 주는 아주 특별한 강복을, 아멘! 아멘!

*** **** ***

색인 (索引)

소개 1
 까이요 주교님의 증언 2
 우리 아버지의 메시지의 첫째 공책 12
 우리 아버지의 메시지의 둘째 공책 39

- 하느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저 아버지이시고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고 상쾌한 일입니까!

특히 저 영혼의 하늘의 캄캄하고 제 십자가가 더 무거울 때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를 느낍니다. 아버지, 저는 제게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 아버지이시고 저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를 밤낮으로 지켜 주시고,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제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무엇이 제게 유리한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무한히 능하신 아버지께서 악에서 선을 끌어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무한히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용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히는 손들 뒤에서 고쳐주는 아버지의 손에 입맞춤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특히 제 바람과 제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제 생애의 모든 사건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보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제 생애의 모든 사건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보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마치 어린 아이가 저를 어머니의 품에 맡기듯이 저를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드리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제가 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더러 무엇이든지 청하라고 하시니, 저는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더불어 아버지께 청합니다... (언기를 바라는 은총을 말할 것).

이런 의향으로 예수성심과 성모성심과 일치하여 제 모든 기도와 희생과 고행과 제 의무에 대한 가장 큰 충실을 아버지께 드립니다(1).

아버지의 성령의 빛과 힘과 은총을 제게 주십시오!

저를 이 성령으로 튼튼하게 하시어 성령을 결코 잃지 않게 해주시고, 제 안에서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거나 약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제 마음을 그 안에 넣으셔서 성모님의 마음과 함께 저희의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십시오!... 그 대신 제게 그토록 필요한 이 은총을 얻어주십시오!

(1) 주 : 이 기도를 9일기도를 드릴 때에는 이런 말을 덧붙인다. "특히 이 9일 동안에 이런 기회에.... 이런 사람과 더불어... 아버지께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인자와 아버지의 자비를 공언하기를 바랍니다!

제 다정스러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어디에서나 저를 아버지의 눈의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십시오. 제가 영원히 아버지께 어울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붙잡히 여기십시오!

* * *

저희들의 영혼의 다정스러운 희망이신 하느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시고 존경받으시고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베풀어지시는 인자이신 하느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시고 존경받으시고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유익한 이슬이신 하느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시고 존경받으시고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대사 (限大赦)

요한 베르디에 추기경

빠리 대주교

1936년 5월 8일

+ 지라르 부주교

1935년 10월 9일

에우제니아 원장.